

그림으로 본

세계 석유정제능력 변동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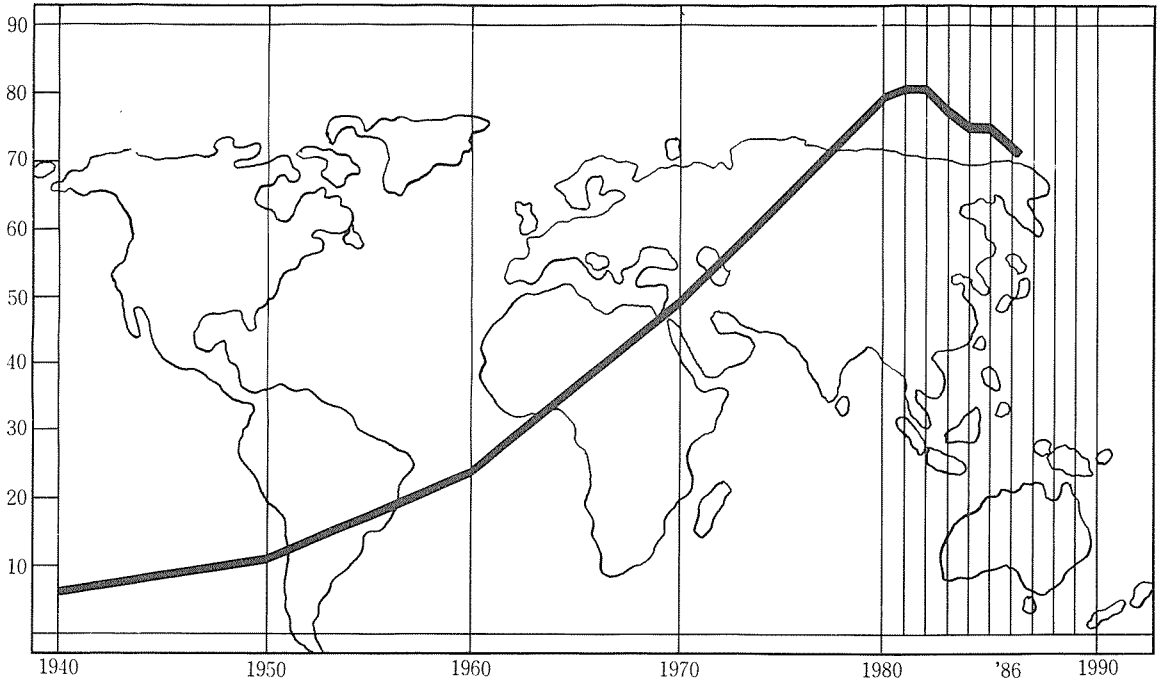
-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-

그동안 석유수요의 증가와 함께 계속 확대추세를 보여오던 세계의 석유정제시설이 80년대

에 들어서면서 점차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. 세계의 석유정제시설은 지난 82년의 8천1백37만8천B/D를 피크로 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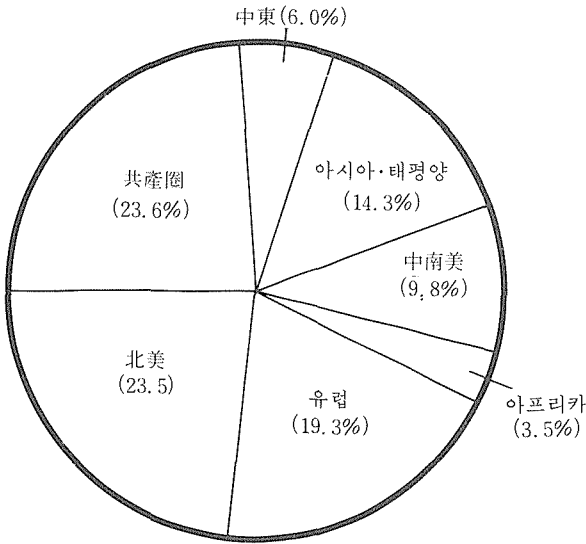
세계 석유정제능력 변동추이 (1940~1986)

(백만B/D)



〈자료〉 Penwell International Petroleum Encyclopedia

지역별 석유정제시설 분포 현황(1987)



〈자료〉 Penwell International Petroleum Encyclopedia, Energy Detente calculations, Energy Detente Chart

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86년에는 7천2백25만3천 B/D로 4년전에 비해 11.2%나 감소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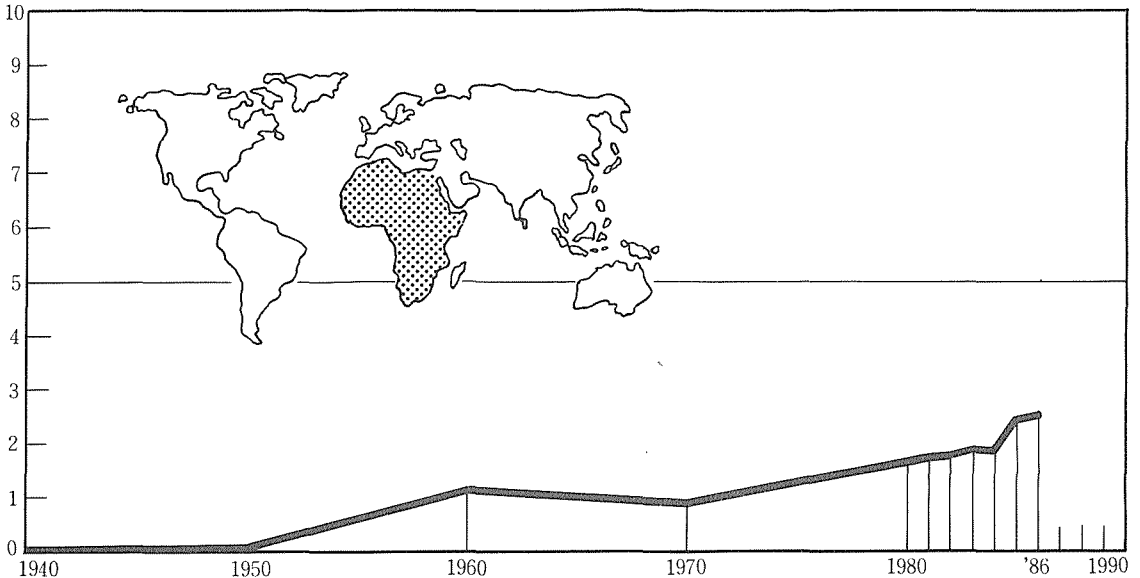
그러나 정제시설능력은 지역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. 즉 歐美선진국은 80년대 들어 감소추세인데 반해 개발도상국과 共産圏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.

정제시설의 지역분포를 보면, 共産圏이 23.6%로 가장 많고, 다음에 歐美 23.5%, 유럽 19.3%, 아시아·태평양지역 14.3%, 中남美 9.8%, 아프리카 3.5%의 순으로 되어 있다.

북미의 경우, 美國은 가까운 장래에 정제시설이 완전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, 캐나다의 정제시설 능력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. 현재 北美지역의 정제시설고도화는 전체의 51%에 이르고 있고, 高옥탄價 휘발유생산시설은 88% 수준에 이르고 있다.

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지역이 유럽이다. 유럽의 석유정제시설은 80년의 2천24만2천B/D에서 86년에는 1천4백37만4천B/D로 급감하여 6년 사이에 무려 28.9%나 감소했다. 87년에는 다시 1천3백95만4천B/D로 감소할 전망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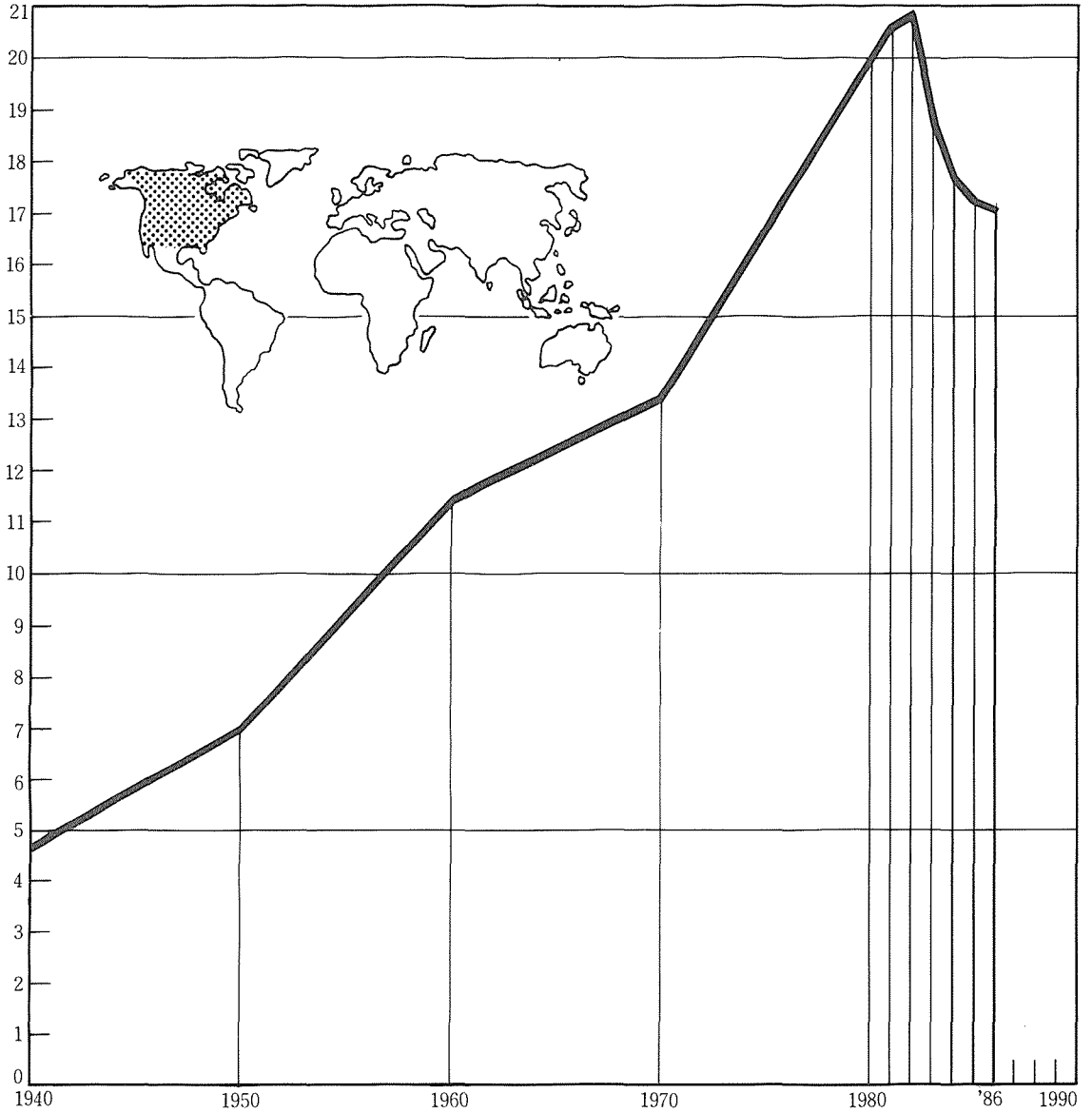
아프리카 정제능력 변동추이(1940~1986)



〈자료〉 Penwell International Petroleum Encyclopedia

北美지역 석유정제능력 변동추이(1940~1986)

(백만B/D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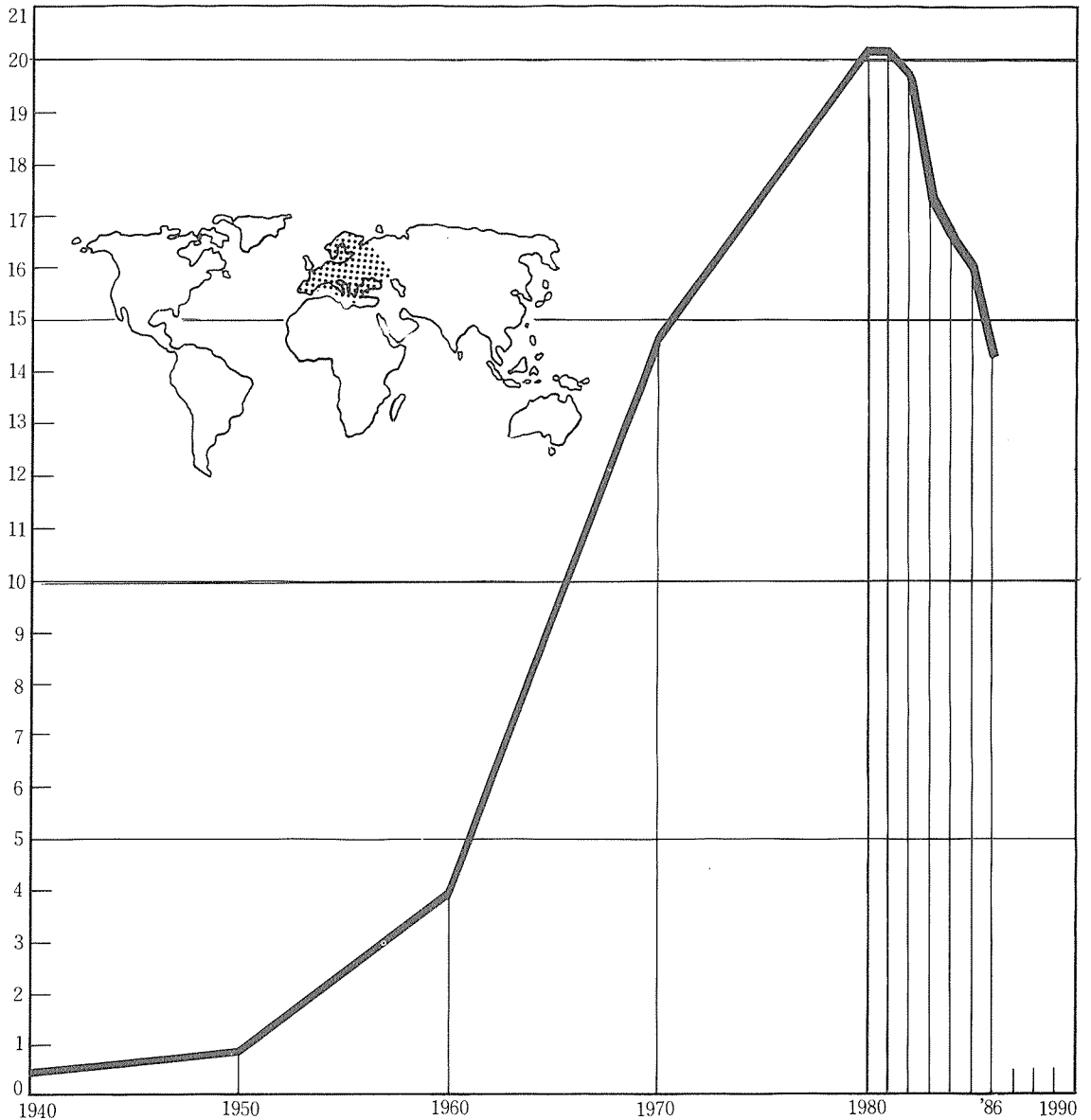
〈자료〉 Penwell International Petroleum Encyclopedia

共産圏의 정제시설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. 지난 82년 이후 공산권의 정제시설은 6%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냈다.

아프리카는 50년대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, 특히 79년의 제2차 석유위기 이후 2백53만1천B/D가 증가했으며, 지난 82년 이후 42.7%의 증가율을 기록했다.

유럽의 정제능력 변동추이(1940~1986)

(백만B/D)



〈자료〉 Penwell International Petroleum Encyclopedi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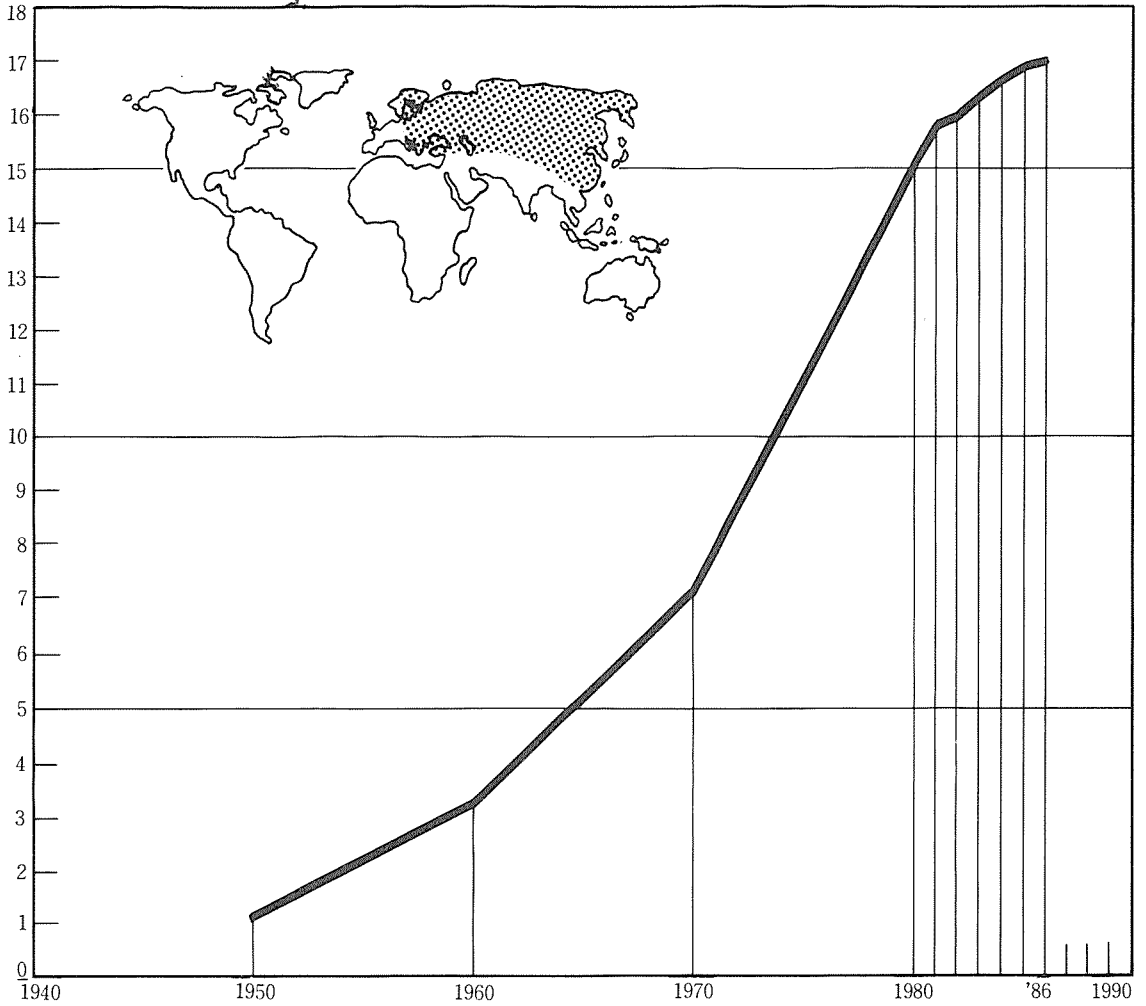
아시아·태평양지역은 과잉시설(예: 싱가포르)의 신규시설 대체로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. 앞으로 수출물량의 확대에 힘입어 다시 정제능력이 증가할 것으로

예상된다.

中東지역은 지난 82년 이후 29.5% 증가했으며, 올해에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 中東지역의 정제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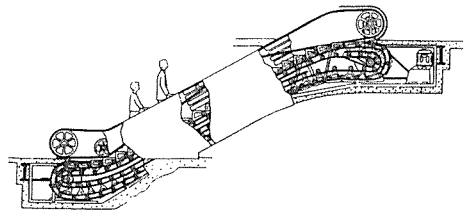
共産圏의 정제능력 변동 추이 (1950~1986)

(백만B/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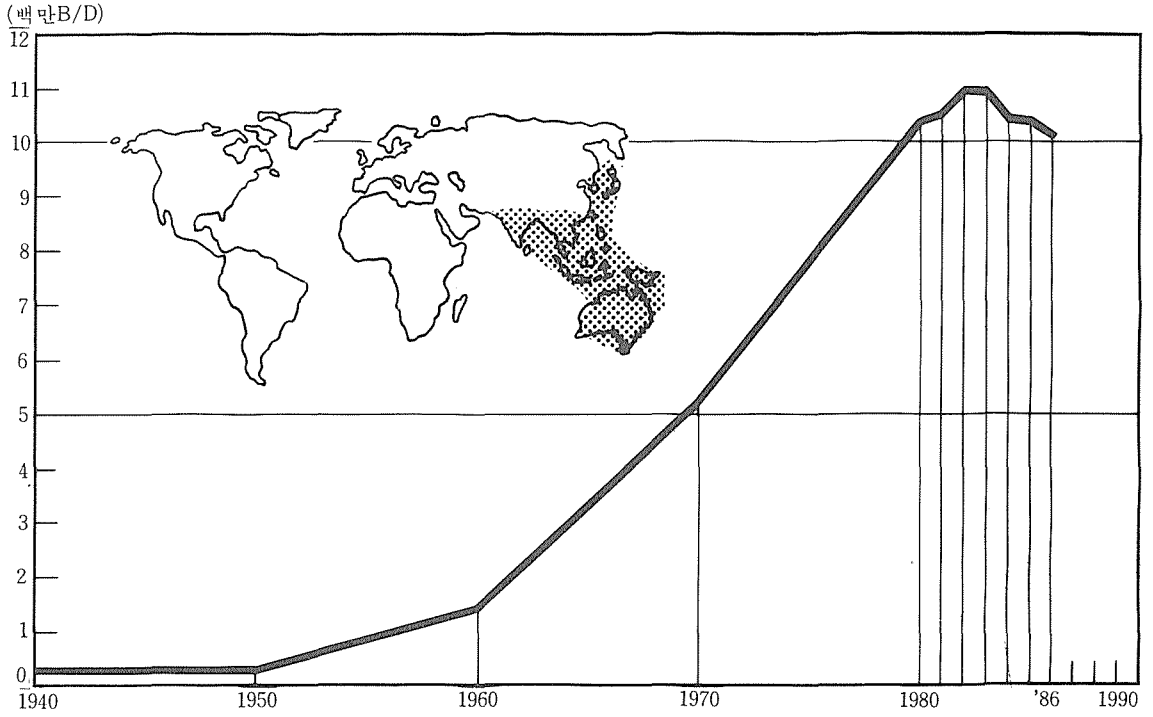


〈자료〉 Penwell International Petroleum Encyclopedia

들은 주로 高品質의 휘발유생산시설에 主안점을 두어 건설되고 있다. (에너지데땅뜨誌에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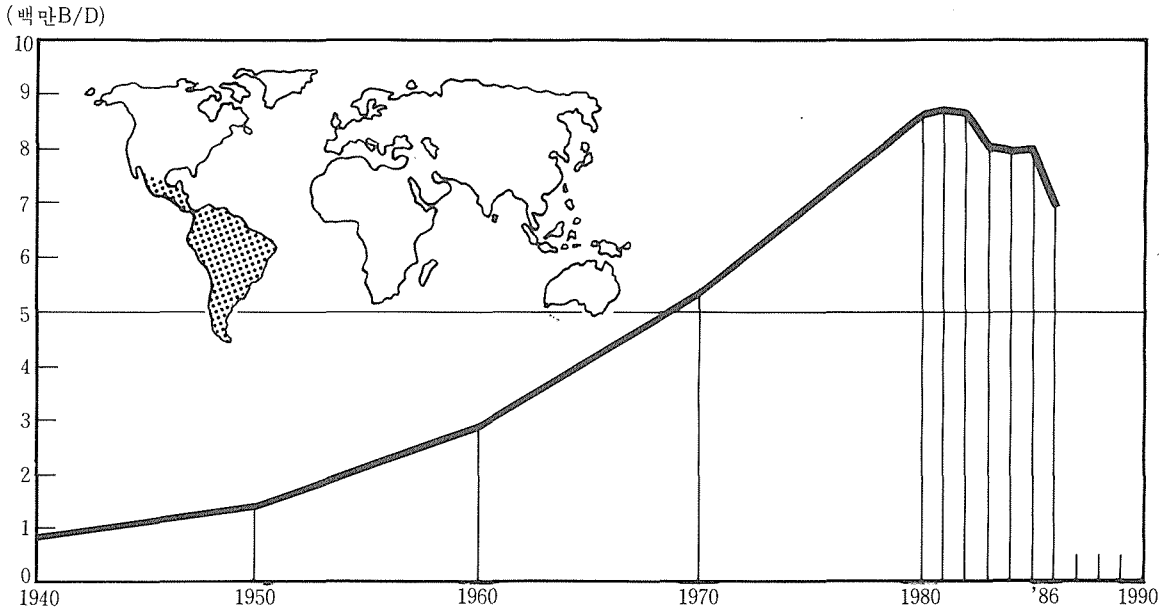


아시아·태평양지역 정제능력 변동추이(1940~1986)



〈자료〉 Penwell International Petroleum Encyclopedi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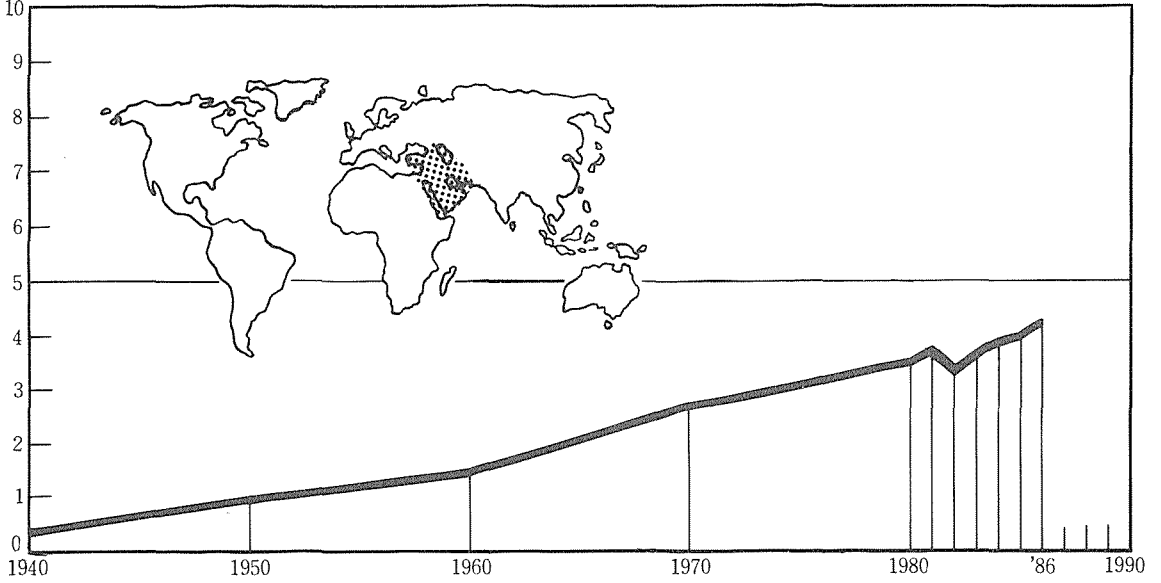
中南美 정제능력 변동추이(1940~1986)



〈자료〉 Penwell International Petroleum Encyclopedia

中東지역의 정제능력 변동추이(1940~1986)

(백만B/D)



〈자료〉 Penwell International Petroleum Encyclopedia

□ 漫評 □

「한톨의 열매」
때문에...



홍해역
온 여름내 먹구름, 비바람은 그렇게 오갔나 보다!